

다문화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임선모*, 신정숙**, 손재홍**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s School Resilience for The Multicultural Policy Implications

Sun-Mo Im *, Jung-Sook Shin **, Jae-Hong Son **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어떤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조절하여 학교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위험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호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자존감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긍정적 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을, 교사지지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조절관계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위험요인 감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Keywords :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교적응유연성, 보호요인, 위험요인

Abstract

This study observed how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influenced by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d which protective factor moderated factor to exert positive influence on school resil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risk factors negatively influenced school resilience and protective

• 제1저자 : 임선모 • 교신저자 : 손재홍

• 투고일 : 2012. 08. 30, 심사일 : 2012. 09. 07, 게재확정일 : 2012. 09. 11.

*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Dept. of Social Welfare, Dongkang College)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factors positively influenced school resilie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showed that 'high self-esteem' moderated 'negative rearing attitude', 'positive attitude' moderated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parent conflict', whereas 'teacher support' moderated 'negative rearing attitude' to significantly increase school resilience.

The study suggested a measure that can reduce risk factors to increase school resilie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moderation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 school resilience, protective factor, risk factor

I. 서론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한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가계재생산이 지속되기 어려운 신분집단의 발생에 따른 결혼연령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외국 여성의 한국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 외모와 피부색깔로 인한 편견,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부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긍정적인 지 못한 사회적 인식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녀들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어머니의 양육에 따른 늦은 언어발달, 부모와의 소통, 외국인 부모를 두었다는 것과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과 따돌림 등으로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1)(2)(3).

한편, 다문화가정이라는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가족지지, 교사 및 친구의 지지 등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유능성을 발휘하는 과정 설명으로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이 적합하다(4).

적응유연성은 역경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유능성을 이루는 것으로, 역경과 위협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적응에 개인의 발달을 포함하는 수많은 체제와 개인의 상호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5). 또한, 적응유연성은 반드시 발달에 위협적인 역경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적응이나 유능함을 나타낸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을

완화시켜 적응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이 더 적합하며, 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감소 또는 완화시키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처해있는 위험상황을 보호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힘으로써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양적 연구를 실시했다.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 3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이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그 대상을 국제결혼가정으로 한정하였다.

다문화가정은 이주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양육태도, 부부갈등, 물리적 환경, 경제적 지위 등 자녀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주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습지도의 한계, 자녀의 행동조절 및 통제력 한계 등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낮은 경제 수준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6)(7)(8).

이러한 가족요인에 의해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고, 피부색 또는 외모의 차이로 사회와 또래 친구들로부터 거부와 무시,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 소극적인 태도, 공격적 행동, 우울, 소외의식 등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10).

2. 학교적응유연성 개념과 영향요인

적응유연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Werner와 Smith는 상처받기 쉬운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불행이나 충격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성공적인 삶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Bernard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의 감소와 건강하거나 생산적인 행동의 증가라고 했다. 즉, 적응유연성이란 고위험 상황, 심각한 역경 또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능력이며, 상처받기 쉬운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 불행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11)(12)(13).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환경적 특징의 요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위험한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적응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보호요인이 있다.

위험요인(risk factors)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 변인으로 부정적 발달 산물을 발생시키는 개인적, 환경적 특징을 의미한다(14). 일반적으로 부정적 결과에 선행하여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고위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동일한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보호요인 개념이 유용하다(13).

적응유연성 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관련된 여러 유의점들과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 보호요인들이 위험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요인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태도, 학교질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에 대한 만족, 학교활동 참여 등으로 학교적응유연성을 측정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유연성 측정변수로 학교에 대한 만족 또는 흥미를 긍정적 학교태도로 수정하여, 긍정적 학교태도와 규율준수를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은 다문화가정이 갖는 위험요인으로, 다문화가정과 관련되거나 다문화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개인관련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사회의 편견과 무시, 부정적인 가족관계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소극적인 태도, 공격적 행동, 우울, 소외의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족관련 위험요인으로는 이주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습지도의 한계, 자녀의 행동조절 및 통제력 한계 등 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어려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양육태도, 부부갈등, 물리적 환경, 경제적 지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학교·사회 위험요인은 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 교우관계, 학교질서 부적응, 부정적인 학교분위기 등을 지적했다(2)(8)(10)(16).

보호요인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개인 또는 환경적 자원으로 개인, 가족, 학교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개인 보호요인은 자아정체성, 의사소통 기술, 높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건강한 신체, 계획성, 명확한 목표, 책임감,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이중 문화의 이해와 수용, 대인관계 기술, 낙관주의, 긍정적 정서, 높은 지능 등을 언급하였으며, 가족관련 요인은 부모의 온정과 격려, 부모의 재정적 지원,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부부간 화목, 자녀에 대한 믿음, 민주적 양육태도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학교사회관련 요인은 교사의 지지,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학교 활동의 참여, 또래의 지지, 개방적 학교 분위기와 지역사회의 물질적 지원, 주민의 지지, 사회 활동 참여 등을 들 수 있다(16)(17)(18).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 중 정체성, 자아존중감, 정서불안과 같은 개인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위험요인과 개인, 가족, 학교사회 보호요인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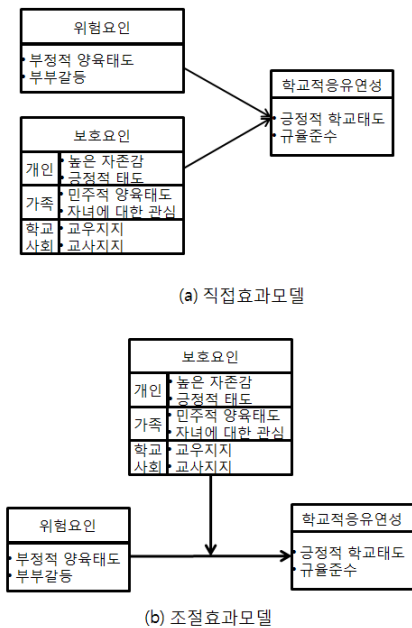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위험상황을 보호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직접효과모델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다. 조절효과모델은 보호요인이 위험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호요인이 어떤 위험요인에 대해서 보호적 효과가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김택호, 진혜민, 홍정미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만들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1 학교적응유연성 척도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는 긍정적 학교태도와 규율준수 2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긍정적 학교태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의 정도, 학교 성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학교 친구들과의 즐겁게 지내는 정도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9이다.

규율준수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의 준수, 학교 지각 및 결석 정도, 학교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 경험 정도,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 무단이탈 경험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7이다.

2.2 위험요인 척도

위험요인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 2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내가 잘 못했을 때 부모의 반응, 부모님의 무관심, 잘 못했을 때의 심한 꾸짖음 정도, 부정적인 통제 정도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0이다.

부부갈등은 부부간 잦은 고함과 다툼, 부부간 잔소리와 불평, 부부간 대화의 정도, 부부간 관심의 정도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6이다.

2.3 보호요인 척도

보호요인은 높은 자존감, 긍정적 태도, 민주적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교우지지, 교사지지 6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높은 자존감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자신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내 자신에 대한 만족, 나에 대한 자부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96이다.

긍정적 태도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지속적인 노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원하는 일의 성취 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1이다.

민주적 양육태도는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 나의 의견에 대한 존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에 대한 허용, 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2이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 공부와 생활에 대한 관심,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1이다.

교우지지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의 존재,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의 존재, 즐겁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나에게 대한 관심과 이해를 잘 해주는 친구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1이다.

교사지지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이 잘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생님이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89이다.

3.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812~0.950로 신뢰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측정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NFI, IFI, TLI는 0.9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는 0.1 이하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GFI=0.888, AGFI=0.857로 적합도지수 0.9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와 AGFI는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CFI=0.910로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 부하값을 검토한 결과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또한,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인 t값이 모두 1.96을 초과해 요인부하값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검토한 결과 0.4 이상으로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에 의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평균분산추출값은 0.594 이상으로 일반적인 기준 0.5를 충족하였고, 개념신뢰도는 0.890 이상으로 일반적인 기준 0.7을 충족하여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구분	하위 변수	측정 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값	SMC	AVE	신뢰도 (α)	개념 신뢰도
학교 적응 유연성	긍정적 학교태도	c1	1.000	0.883	-	-	0.780	0.765	.929	.934
		c2	0.944	0.866	0.044	21.397***	0.751			
		c3	0.970	0.878	0.044	22.032***	0.771			
		c4	0.966	0.872	0.045	21.676***	0.760			
	규율준수	c5	1.000	0.876	-	-	0.767	0.765	.927	.933
		c6	1.085	0.868	0.051	21.085***	0.754			
		c7	1.073	0.878	0.050	21.580***	0.771			
		c8	1.013	0.877	0.047	21.553***	0.770			
위험 요인	부정적 양육태도	b1	1.000	0.905	-	-	0.819	0.828	.950	.934
		b2	1.156	0.933	0.044	26.118***	0.871			
		b3	1.085	0.944	0.040	26.954***	0.891			
		b4	0.947	0.856	0.045	20.950***	0.733			
	가족갈등	b5	1.000	0.792	-	-	0.627	0.717	.906	.896
		b6	1.029	0.889	0.062	16.673***	0.790			
		b7	1.098	0.899	0.065	16.890***	0.808			
		b8	1.057	0.801	0.073	14.579***	0.642			
보호 요인	높은 자존감	a9	1.000	0.824	-	-	0.679	0.666	.896	.919
		a10	0.738	0.744	0.051	14.358***	0.553			
		a11	1.013	0.841	0.058	17.410***	0.708			
		a12	1.007	0.850	0.057	17.689***	0.722			
	긍정적 태도	a13	1.000	0.770	-	-	0.593	0.664	.901	.901
		a14	1.046	0.819	0.074	14.137***	0.671			
		a15	0.968	0.798	0.071	13.709***	0.636			
		a16	1.094	0.869	0.073	15.088***	0.755			
민중적 양육태도	b9	1.000	0.827	-	-	0.684	0.594	.852	.890	
	b10	0.911	0.750	0.066	13.701***	0.562				
	b11	1.051	0.792	0.071	14.757***	0.628				
	b12	0.904	0.709	0.071	12.724***	0.502				
자녀에 대한 관심	b13	1.000	0.839	-	-	0.703	0.747	.921	.926	
	b14	1.084	0.870	0.060	18.032***	0.756				
	b15	1.045	0.877	0.057	18.276***	0.769				
	b16	1.102	0.871	0.061	18.082***	0.759				
교우지지	d9	1.000	0.806	-	-	0.649	0.703	.901	.919	
	d10	0.966	0.850	0.058	16.672***	0.723				
	d11	0.970	0.845	0.059	16.440***	0.714				
	d12	0.925	0.852	0.056	16.393***	0.725				
교사지지	d13	1.000	0.747	-	-	0.557	0.724	.908	.929	
	d14	1.242	0.838	0.083	14.994***	0.702				
	d15	1.234	0.864	0.079	15.582***	0.747				
	d16	1.419	0.942	0.083	17.155***	0.887				
적합도 지수	$\chi^2 = 459.3(df=234, p=.000)$, RMR=.044, GFI=.888, AGFI=.857, CFI=.910, NFI=.922, IFI=.960, TLI=.953, RMSEA=.059									

*:p<.05, **:p<.01, ***:p<.001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이다.

본 조사는 2011년 5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대상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표집 방법, 자료의 활용 범위를 설명하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와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학교적응유연성 정도, 위험수준, 보호수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각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각 변수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수인 긍정적 학교태도와 규율준수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위험요인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부부갈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요인은 민주적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교우 지지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자존감, 긍정적 태도,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Table 2.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적응유연성	3.35	0.87	1.38	4.88
긍정적 학교태도	3.40	0.88	1.50	5.00
규율준수	3.39	0.88	1.50	5.00
위험요인	2.31	0.55	1.13	3.79
부정적 양육태도	2.00	1.10	1.00	5.00
부부갈등	2.26	0.94	1.25	5.00
보호요인	3.65	0.55	2.21	4.92
높은 자존감	3.56	0.74	1.75	5.00
긍정적 태도	3.44	0.80	1.25	5.00
민주적 양육태도	3.89	0.71	2.00	5.00
자녀에 대한 관심	3.72	0.87	1.00	5.00
교우지지	3.87	0.83	1.25	5.00
교사지지	3.46	0.80	1.00	5.00

2. 구조모형 분석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3. Structural model's fit index

구 분	적합도 기준	직접효과모델	조절효과모델
X2/p	>0.05	237.879/.000	216.583/000
df	-	97	102
RMR	0.05이상	.042	.041
GFI	0.9이상	.906	.889
AGFI	0.9이상	.869	.830
CFI	0.9이상	.968	.963
NFI	0.9이상	.948	.932
IFI	0.9이상	.968	.963
TLI	0.9이상	.961	.952
RMSEA	0.1이하	.073	.064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직접효과모델의 AGFI 값 0.869는 적합도 기준 이하이지만 다른 지수의 적합도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절효과모델의 GFI 값 0.889, AGFI 값 0.830은 적합도 기준 이하이지만 다른 지수의 적합도 조건은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두 모델 모두 최적모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측정변수의 긍정적 학교태도와 규율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위험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s of risk factors on school resilience

구 분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t)	p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긍정적 학교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303	-.339	.059	-5.115, .000
	- 부부갈등	-.268	-.277	.065	-4.111, .000
규율준수	-부정적 양육태도	-.234	-.283	.055	-4.255, .000
	- 부부갈등	-.294	-.330	.061	-4.778, .000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부정적 양육태도, 부부갈등)이 학교적응유연성(긍정적 학교태도, 규율준수)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위험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양육태도, 부부갈등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한 박순희(2009), 변미선(2005), 홍정미(2009)의 연구 일치한다.

표 5.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resilience

구 분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t)	p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긍정적 학교태도	- 높은 자존감	.680	.594	.071	9.606	.000
	- 긍정적 태도	.405	.339	.071	5.714	.000
	- 민주적 양육태도	.661	.512	.113	5.837	.000
	- 자녀에 대한 관심	.288	.262	.091	3.175	.001
	- 교우지지	.519	.468	.059	8.865	.000
규율준수	- 교사지지	.732	.522	.078	9.378	.000
	- 높은 자존감	.597	.565	.069	8.660	.000
	- 긍정적 태도	.374	.338	.070	5.361	.000
	- 민주적 양육태도	.641	.537	.108	5.921	.000
	- 자녀에 대한 관심	.221	.218	.086	2.575	.010
교사지지	- 교우지지	.463	.454	.055	8.476	.000
	- 교사지지	.687	.533	.074	9.318	.000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보호요인인 높은 자존감, 긍정적 태도, 민주적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교우지지, 교사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의 긍정적 학교태도와 규율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유미(2009), 박은혜(2010), 이순비(2010), 한정애(2009), 홍정미(2009) 연구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으로 설명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학교사회요인, 개인요인, 가족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4.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연 교차 타당성(loose cross validation) 여부를 확인하여, 행렬의 C.R.(t값)이 유의확률 p=0.05이하에서 ±1.96보다 크다면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조절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두 집단에는 교차 타당성이 없다고 해석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 가족, 학교사회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Table 6. Moderation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조절변수	구 분	표준화계수		t값	p값
		고집단	저집단		
높은자존감	긍정적 학교태도 - 부정적	-.174	-.414	-2.67	.006
	규율준수 - 양육태도	-.128	-.333	-2.39	.042
	긍정적 학교태도 - 부부갈등	-.256	-.351	-0.94	.000
	규율준수 - 부부갈등	-.247	-.343	-1.02	.000
긍정적태도	긍정적 학교태도 - 부정적	-.302	-.512	-2.24	.000
	규율준수 - 양육태도	-.224	-.442	-2.51	.000
	긍정적 학교태도 - 부부갈등	.121	-.453	-2.82	.046
	규율준수 - 부부갈등	-.116	-.435	-3.09	.032
민주적 양육태도	긍정적 학교태도 - 부정적	-.112	-.260	-1.04	.375
	규율준수 - 양육태도	-.011	-.208	-1.41	.930
	긍정적 학교태도 - 부부갈등	-.183	-.297	-1.07	.008
	규율준수 - 부부갈등	-.190	-.296	-1.06	.005
자녀에 대한 관심	긍정적 학교태도 - 부정적	-.097	-.475	-3.61	.223
	규율준수 - 양육태도	-.050	-.402	-3.41	.536
	긍정적 학교태도 - 부부갈등	-.207	-.373	-1.47	.011
	규율준수 - 부부갈등	-.239	-.356	-1.08	.004
교우지지	긍정적 학교태도 - 부정적	-.314	-.334	-0.20	.000
	규율준수 - 양육태도	-.254	-.272	-0.19	.000
	긍정적 학교태도 - 부부갈등	-.223	-.292	-0.61	.002
	규율준수 - 부부갈등	-.240	-.274	-0.32	.000
교사지지	긍정적 학교태도 - 부정적	-.186	-.529	-3.61	.000
	규율준수 - 양육태도	-.169	-.412	-2.78	.000
	긍정적 학교태도 - 부부갈등	-.293	-.435	-1.40	.000
	규율준수 - 부부갈등	-.295	-.421	-1.35	.000

첫째, 위험요인인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한 개인요인인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 태도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높은 자존감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하여 학교적응유연성(긍정적 학교태도, 규율준수)을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높은 자존감의 부부갈등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긍정적 태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을 조절하여 학교적응유연성(긍정적 학교태도, 규율준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요인인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한 가족요인인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관심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사회 보호요인인 교우지지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교우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의 경우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갈등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조절관계로 볼 때, 위험요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은 개인 보호요인

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가족의 보호요인으로 조절되지 않으며, 교우지지에 의해서도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떤 보호요인에서 보호적 효과가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개인, 가족, 학교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즉, 보호요인의 하위요인인 개인, 가족, 학교사회 요인과 위험요인과의 조절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개인요인인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 태도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학교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라고 밝히는 것처럼, 위험요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보호요인에서 보호적 효과가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 개인, 가족, 학교사회에 대한 예방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개인 보호요인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의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녀의 기질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문화가족의 위험요인은 청소년 개인의 위험요인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위험요인을 먼저 또는 동시에 감소시켜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정 분위기는 청소년이 개인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자기개발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가정환경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교사지가 위험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뢰감과 일관성

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같이 공감해주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함께 상담전문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측정 변수는 부정적 양육태도, 부부갈등, 높은 자존감, 긍정적 태도, 민주적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교사 지지, 교우지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 및 범위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전체를 의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설문지법은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횡단연구로 향후 학교적응유연성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들어 재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재혼가정은 초혼가정과 다르게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혼 국제결혼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재혼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C.H. Yang, Y.J. Kim, S.Y. Son, S.H. Yang, B.K. Shin, J.H. Cho, "A Study on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Foreign Wive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Vol.16, pp. 127-149, 2003.
- [2] S.B. Oh,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2, No. 3, pp. 61-83, 2005.
- [3] C.R. Nho, J.J. Hong,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2, pp. 127-160, 2006.
- [4] Olsson, C. A., Bond, L., Burns, J. M., Wella-Brodrick, D. A., & Sawyer, S. M. "Adolescent resilience :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 1-11, 2003.
- [5] Sam Goldstein, Robert B. Brook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seoul, Hakjisa Publisher (H.S. Shin), 2009.
- [6] H.H. Lee. "A Study on the Meanings and Typ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 3, pp. 143-155, 2012
- [7] Eamom, M. K.,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 Approach". Social Work, Vol. 46, No. 3, pp. 256-266, 2001.
- [8] Y.J.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2007.
- [9] S.J. Song, "The Effect of the socialization of a child from an international marriage on ego-identity: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07.
- [10] S.B. Choi, "The Analysis of School Life Adaptation on The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University, 2010.
- [11] Masten, A. S., Best, K., & Garmezy, N., "Resilience and development :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pp. 425-444, 1990.
- [12] Masten, A. S., & Coatsworth, J. 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205-220, 1998.
- [13] Werner, E. E., & Smith, R. S.,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1982.
- [14] Masten, A. S.,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pp. 227-238, 2001.
- [15] S.H. Shin, "Kindergarten resilienc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2009.
- [16] J.M. Hong,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2009.
- [17] S.H. Park, "A Study on Resilience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2009.
- [18] S.B. Lee, "The Effects of Self-Concept, Parent's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ticultural families",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7.

저자 소개



임 선 모

2012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현 재 :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Email : smim@dkc.ac.kr



신 정 숙

2012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현 재 : 우리지역아동센터장
 관심분야 : 아동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Email : sjs2726@daum.net



손 재 홍

2010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현 재 : 광주광역시 시의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가족복지
 Email : sonjh5682@hanmail.net

